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 윤 미 ·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Adolescence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Cho, Yun Mi · Lee, Sook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chool adjustment.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85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Kwangju. For statistical analysis, Cronbach' α , t-test, one-way ANOVA,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LS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concerning connections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education of the father made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followed by living standard, free time for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and free time for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The level of communication with paren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each sub-factor of school adjustment. As a result of mak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relative impact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self-efficacy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nd predictor of school adjust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exercised a different influence on th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self-efficacy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Key word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여야만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

장하여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 속하여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다른 시기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로 인식되어 적응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접수일: 2008년 10월 29일 채택일: 2008년 12월 1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ook Tel: 530-1323

e-mail: sookleej@hanmail.net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청소년기의 적응문제는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적응이란 개념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Hinshaw(1962)는 적응이란 항상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 개인이 무리없이 원만하게 잘 받아들여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균형과 불안 등의 긴장이 없게 하여 조화가 잘되고 균형이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llport(1961)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생태라고 하였다.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가정생활을 벗어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학교에서 순조롭게 적응하는 일은 중요한 개인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Rutter 1985). 학교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오늘날의 가정이 지닌 교육기능의 약화로 인해 학교가 단순히 지식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인 성장발달을 통한 대처능력 배양, 교사 및 교우와의 대인관계 형성 등의 인격적 함양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미라 2000). 청소년기 중에서도 중학교 진학은 청소년에게 상당한 의미의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심리적·성적 변화와 더불어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수줍음과 불안감이 증대되는 심리적 변화에 따라(Hurlock 1973)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메스컴의 발달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빠른 사회변화 등으로 청소년의 적응문

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61%)와 학업 및 학교 부적응(59.2%)이라고 조사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조선일보 2007).

한편,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선 1995). 또,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개념이며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형성될 수 있는 정의적인 특성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의 학교적응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유효현 2000). 최근까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대인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중 의사소통부분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외에 영향력있는 변인들로 주목되어온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

능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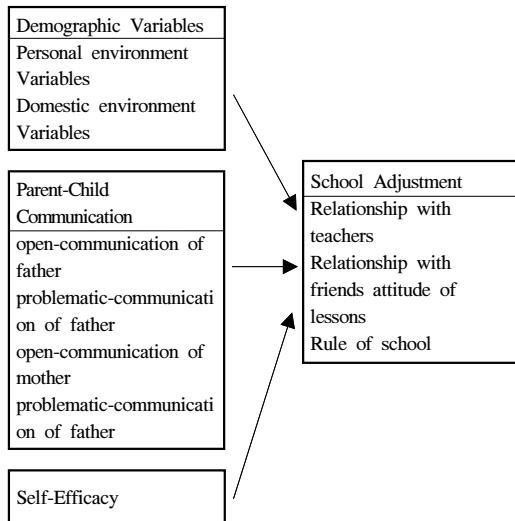


Fig. 1.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Adolescent,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II. 선행연구 고찰

1. 학교생활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 보았을 때 그 중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충체를 통틀어 학교생활이라 정의할 수 있고 학교생활의 구성요소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가 있고 학급생활등도 이에 포함된다(지수경 2001).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고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다(안영복 1984).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

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원용진(1993)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 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적응으로 보았다. 즉 학교생활의 조화와 만족에 초점을 두어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학교생활을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 학교생활에 있어 잘 적응해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보았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교생활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 조중현(198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는 반면, 배기면(1981), 유상철(198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을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적응에서의 성 차이를 밝혔는데 학교생활 일반, 학교수업, 교사에 대한 여학생의 적응도가 남학생보다 높으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적응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박지현(2003)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으나 유윤희(1994)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학력에 대해서는 김용희(1987), 박지현(2003)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안인영(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장미숙(2005)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 이상인 아동이 하 수준인 아동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와 학교행사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연구마다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한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기의 자녀는 심리적 자립의 과정에서 부모와의 대립과 갈등을 겪어가게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의 이해심 깊은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들간에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et al. 1980). 의사소통의 다양한 유형 중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역할과 책임에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요구되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완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서명성 1998). 더욱이 현대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정과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한 가정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순영 2006). 즉, 청소년 자녀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선 1995)거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적응(박지현 2003; 이영주 2007; 이은영 2006)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 시내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이상의 청소년이 자신의 행복조건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한 반면에, 64.7%의 청소년이 하루 평균 17분 이하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의 내용도 70%가 일상적인 대화나 학습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휴식, 여가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인데 이 시간을 주로 집에서 컴퓨터(72.1%)를 하거나 또는 TV시청(50.5%)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선일보 2007). 이처럼 청소년들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많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반영하는 반면에, 낮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한다(노안영 등 2006).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행동의 여러 측면에까지 작용한다(이영주 2007). 어려

움에 직면했을 때 높은 효능감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생들보다 더 분발하여 상황에 적응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며 수행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취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신용배 1994). 김병찬(1995)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관련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사와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학급참여와 자기효능감 등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관련 변인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이전의 수행수준뿐만 아니라 학습에서의 대인관계 즉 교사 및 친구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과 학습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자기효능감 점수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기효능감 상위집단은 하위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등에서 일반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200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관계, 학교생활적응도 모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임유진(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교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연구마다 그 하위요인과 개념이 다소 다르며 상관의 정도와 설명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은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 2, 3학년 남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로 접어들어 초등학교 때와 달리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학교생활의 적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입학한 중학교 1학년보다는 어느정도 적응이 이루어진 2, 3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40.7%, 여학생은 59.3%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2학년이 48.1%, 중학교 3학년이 51.6%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0세 이하 9.5%, 41~50세 80.4%, 51세~60세미만은 9.5%로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연령이 41~50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0세미만이 24.6%, 41~50세가 67.3%로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역시 41~50세 이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4.9%, 대학교 졸업이상(대학원 포함)이 53.3%로 대학교 졸업이상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60.3%, 대학교 졸업이상(대학원 포함)이 37.5%로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위권이 20.4%, 중위권이 59.3%, 하위권이 18.2%로 자신의 가정이 중위권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에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있어서는 “거의 안한다” 24.6%, “30분 미만” 35.4%, “30분-1시간” 22.1%, “1시간 이상” 14.7%로 30분미만의 대화시간을 갖는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있어서는 “거의 안한다” 7.4%, “30분 미만” 29.1%, “30분-1시간” 28.1%, “1시간 이상” 33.7%로 1시간이상의 대화시간을 갖는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Section	N(%)	Variables	Section	N(%)
Gender	male	116(40.7)	Economic condition	high ranking	58 (20.4)
	female	169(59.3)		medium	169 (59.3)
Grade	2th	137(48.1)		low ranking	52 (18.2)
	3th	148(51.9)		nothing response	6 (2.1)
Education of father	under middle	16 (5.6)		under middle	14 (4.9)
	high school	112 (39.3)	high school	158 (55.4)	
	university	134 (47.0)	university	99 (34.7)	
	over graduate school	18 (6.3)	graduate school	8 (2.8)	
	nothing response	5 (1.8)	nothing response	6 (2.1)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rarely	70 (24.6)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rarely	21 (7.4)
	below 30 minutes	101 (35.4)		below 30 minutes	83 (29.1)
	30minutes - 1 hour	63 (22.1)		30minutes - 1hour	80 (28.1)
	above 1 hour	42 (14.7)		above 1 hour	96 (33.7)
	nothing response	9 (3.2)		no response	5 (1.8)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있어 10-30분미만이 응답한 학생의 40%이며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아버지와 대화시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비교적 길다고 나타난 최인경(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학교생활적응척도이다.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CA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하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용질문지(Parent form)와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 (Adolescent form)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개 문항으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 하위척도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의 하위척도는 가

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방식은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하위요인별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가 되며,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이고,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에서 먼저 부와의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90, 문제형 의사소통은 .82로 나타났고, 모와의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90, 문제형 의사소통은 .81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해 제작한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척도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학생이 대답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고 예상되는 자기조절효능감 변인의 3문항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와 과제난이도 선호변인의 1문항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의 자기효능감 총 4문항을 제거하고 과제난이도 선호 변인에서 학업동기검사의 문항을 참조하여 ‘학교 공부 중에서 어려운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낫다.’의 2문항을 추가하여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9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6문항의 3개 하위변인, 총 22문항으로 자기효능감을 검사하였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 해석은 결과가 높을수록 그 척도가 측정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자신감은 .78, 자기조절효능감은 .75, 과제난이도 선호는 .68, 전체적도는 .81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척도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는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자가 하위요인의 개념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항들은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의 문항을 ‘나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문항을 ‘나는 수업 중 지적을 받을까봐 두렵다’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하위변인은 교사관계 8문항, 교우관계 8문항, 수업태도 8문항, 학교규칙 8문항으로 모두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32문항으로 학교생활적응을 검사하였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모든 문항을 합한 것이 학교적응 점수이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교사관계는 .69, 교우관계는 .76, 수업태도는 .66, 학교규칙은 .66, 전체적도는 .81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검사지의 내용을 점검하고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0부 중에서 48부를 회수하여 그 가운데 부실 기재된 5부를 제외하고 43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검사의 내용 이해와 질문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여부를 확인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본 조사는 설문지 조사법으로 실시하였다. 남녀공학 중학교 두 곳을 임의표집하고 각 학교의 학년 당 2개 학급씩을 다시 추출하여 남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30부를 배부하여 325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한 285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007년 6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연구자가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에게 실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선생님의 지도 하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점수와 표준 편차,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t-test,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와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성별, 부학력, 경제적 수준, 부 대화시간과 모 대화시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학년, 모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 규칙($t=2.45,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규칙에 있어 더 긍정적인 임을 알 수 있다. 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교우관계($F=3.97, p<.01$)와 수업태도($F=4.53, p<.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교우관계($F=12.27, p<.001$)와 수업태도($F=4.86, p<.01$), 전체학교생활적응($F=4.47, p<.05$)에 있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 대화시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F=5.00, p<.01$), 교우관계($F=3.19, p<.05$), 수업태도($F=3.86, p<.05$), 전체 학교생활적응($F=5.89, p<.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와의 대화시간에 있어 거의 대화를 안하는 중학생보다 1시간 이상 하는 중학생이 교사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모와의 대화시간에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F=4.67, p<.01$), 교우관계($F=3.95, p<.01$), 전체학교생활적응($F=6.59,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모와의 대화

Table 2. The differences of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Group	School adjustment					M(SD)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attitude of lessons	rule of school	school adjustment (Total)	
Gender	male	3.13(.72)	3.62 (.63)	2.98(.58)	3.06(.55)	3.20(.45)	
	female	3.01(.72)	3.73 (.68)	2.95(.60)	2.89(.58)	3.15(.44)	
	t	1.46	- 1.28	.32	2.45*	1.01	
Education of father	under middle	3.04(.63)	3.27(.62) a	2.71(.38) a	3.14(.49)	3.04(.29)	
	high school	3.08(.69)	3.69(.65)ab	2.97(.60) a	2.96(.54)	3.18(.44)	
	university	3.05(.75)	3.70(.68) ab	2.93(.59) ab	2.91(.59)	3.15(.46)	
	over graduate school	3.01(.86)	4.04(.53) b	3.39(.48) b	3.01(.75)	3.37(.45)	
	F	.06	3.97**	4.53***	.87	.15	
Economic condition	high ranking	3.01(.82)	3.70(.71) b	2.98(.66) b	3.04(.59)	3.18(.52) b	
	medium	3.07(.67)	3.80(.58) b	3.01(.58) b	2.95(.55)	3.21(.40) b	
	low ranking	3.08(.75)	3.29(.75) a	2.73(.50) a	2.89(.63)	3.00(.46) a	
	F	.18	12.27***	4.86**	.95	4.47*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rarely	2.81(.59) a	3.55(.65) a	2.79(.61) a	2.92(.66)	3.02(.43) a	
	below 30 minutes	3.13(.78) ab	3.67(.66) ab	2.96(.51) ab	2.92(.57)	3.17(.42) ab	
	30minutes-1 hour	3.04(.68) ab	3.75(.61) ab	3.09(.61) b	2.98(.49)	3.21(.43) ab	
	above 1 hour	3.61(.75) b	3.93(.65) b	3.11(.65) b	3.10(.53)	3.36(.46) b	
	F	5.00**	3.19*	3.86*	1.17	5.89**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rarely	2.90(.57) a	3.45(.63)	2.65(.48) a	2.76(.58)	2.94(.34) a	
	below 30 minutes	2.86(.75) a	3.64(.62)	2.88(.61) ab	2.88(.62)	3.06(.46) ab	
	30minutes-1 hour	3.10(.72) b	3.65(.62)	2.98(.54) ab	3.00(.53)	3.18(.39) ab	
	above 1 hour	3.24(.69) b	3.83(.73)	3.09(.62) b	2.96(.58)	3.30(.45) b	
	F	4.67**	2.55	3.95**	2.33	6.59***	

* $p<.05$ ** $p<.01$ *** $p<.001$

시간에 있어 30분미만 정도를 하는 중학생보다 30분 이상을 하는 중학생이 교사관계에 있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알 수 있고, 모와의 대화 시간을 거의 안하는 중학생보다 1시간 이상 하는 중학생이 수업태도와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을 각각 $M \pm 1/2SD$ 를 사용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에 따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개방적 의사소통과 모-개방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전체학교생활적응과 모든 하위변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부-문제적 의사소통에서는 전체학교생활적응과 수업태도, 교우관계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모-문제적 의사소통에서는 전체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

Table 3. The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parent-adolescence's communic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chool adjustment					M(SD)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attitude of lessons	rule of school	school adjustment (Total)		
	Variable	Section	N(%)						
Parent - child communication	open-communication of father	top	95 (33.3)	3.30 .74 b	3.94 .59 b	3.19 .61 b	3.10 .55 b	3.38 .45 c	
		middle	92 (32.3)	3.03 .63 a	3.65 .64 a	2.92 .52 a	2.94 .54 ab	3.14 .36 b	
		low	98 (34.4)	2.86 .71 a	3.47 .68 a	2.78 .56 a	2.83 .60 a	2.99 .41 a	
		F		9.73***	13.31***	13.41***	5.81**	23.28***	
	problematic-communication of father	top	82 (28.8)	3.17 .75	3.44 .68 a	2.81 .58 a	2.90 .67	3.03 .44 a	
		middle	105 (36.8)	3.11 .66	3.74 .65 b	2.91 .54 a	2.97 .47	3.14 .40 a	
		low	98 (34.4)	2.84 .73	3.84 .60 b	3.15 .60 b	3.03 .58	3.30 .45 b	
		F		.300	9.45***	8.49***	1.19	9.17***	
	open-communication of mother	top	94 (33.0)	3.17 .75 b	3.92 .63 c	3.07 .62 b	2.91 .54 ab	3.27 .44 b	
		middle	111 (38.9)	3.11 .66 b	3.67 .65 b	2.99 .58 ab	3.06 .56 b	3.21 .41 b	
low		80 (28.1)	2.84 .73 a	3.44 .63 a	2.80 .54 a	2.86 .60 a	2.99 .44 a		
		F		5.07**	12.49***	5.08**	3.34*	10.13***	
problematic-communication of mother	top	91 (31.9)	2.98 .69 a	3.51 .64 a	2.85 .54 a	2.92 .59	3.01 .43 a		
	middle	99 (38.9)	2.95 .68 a	3.66 .64 ab	2.92 .58 ab	2.95 .53	3.12 .44 a		
	low	95 (28.1)	3.25 .75 b	3.88 .66 b	3.12 .62 b	3.00 .50	3.31 .42 b		
	F		5.03**	7.67**	5.29**	.45	8.34***		

*p<.05 **p<.01 ***p<.001

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에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관계에서는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적게 하는 '하' 집단보다 교사관계에 있어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우관계에서는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중'집단이하 보다 교우관계에 있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업태도에서는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중'집단이하 보다 수업태도에 있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에 있어서는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보다 학교규칙에 있어 더 적응을 잘함을 알 수 있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부-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집단이 부-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문제적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부-문제적 의사소통의 '중'집단이하가 부-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하는 '상'집단보다 교우관계에 있어 더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업태도에 있어서는 부-문제적 의사소통의 '중'집단이하가 부-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하는 '상'집단보다 교우관계에 있어 더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문제적 의사소통의 '중'집단이하가 '상'집단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부-문제적 의사소통의 '중'집단이하가 부-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개방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중'집단이상이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보다 교사관계에 있어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중'집단 보다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중'집단이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보다 교우관계에서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태도에서는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집단이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 보다 수업태도에 있어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규칙에 있어서는 모-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집단이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하는 '하' 집단보다 학교규칙에 있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중'집단이상이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문제적 의사소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관계에 있어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이 모-문제적 의사소통의 '중'집단 이상 보다 교사관계에 있어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에서는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이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 집단보다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태도에 있어서는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이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상' 집단보다 수업태도에 있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하'집단이 모-문제적 의사소통의 '중'집단 이상 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전체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집단이 '중'이하 집단보다 교사관계에 있어 더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집단이 '중'이하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수업태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보다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수업태도에 있어 더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으며 학교 규칙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집단이 '중'이하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Table 4.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school 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attitude of lessons			rule of school			school adjustment (total)		
Variable	Section	N (%)	M	SD	(S)	M	SD	(S)	M	SD	(S)	M	SD	(S)	M	SD	(S)
Self-efficacy	top	80 (28.1)	3.39	.76	b	3.98	.55	b	3.38	.55	c	3.15	.68	b	3.48	.44	b
	middle	127 (44.6)	2.93	.63	a	3.63	.64	a	2.89	.50	b	2.89	.47	a	3.08	.35	a
	low	78 (27.4)	2.93	.71	a	3.48	.71	a	2.64	.52	a	2.88	.56	a	2.98	.42	a
F			12.83***			13.00***			42.88***			6.37**			35.41***		

p<.01 *p<.001

(S)는 Scheffe' 를 의미한다.

‘상’집단이 ‘중’이하 집단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병찬 1995; 유효현 2000; 임유진 2001; 장경선 2006)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인 성별, 부학력, 경제수준, 부대화시간, 모 대화시간과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다.

독립변인들 중에서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자에 0, 여자에 1을 주었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있어 부 의사소통(총점)과 모 의사소통(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기 위해 부-문제적 의사소통과 모-문제적 의사소통을 역점 처리하고 각

각의 부-개방적 의사소통과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합하여 부-의사소통과 모-의사소통을 구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그 범위가 1.02 ~ 1.95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독립변인군의 투입순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남민숙 2006; 박지현 2003; 임유진 2001)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기본 변인군으로 하여 1단계에 투입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태자 2006; 김화심 2006; 조규식 2005)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수를 2단계에 투입하였고, 자기효능감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1) 전체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I에서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모 대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of the school 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¹⁾	-.05	-.05	-.07	-.07	-.05	-.05
	education of father	.02	.04	.02	.05	.01	.03
	economic condition	-.04	-.07	-.03	-.06	-.03	-.06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05	.11	-.01	-.03	-.02	-.03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10	.21**	.08	.17*	.08	.16*
Parent - adolescence'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of father			.25***	.09	.15*	
	communication of mother			.12	.08	.12	
Self- efficacy					.30	.32***	
F	5.41***		7.34***		11.03***		
R ²	.10		.17		.26		
ΔR^2	.10		.07		.09		

*p<.05 **p<.01 ***p<.001

1) 성별: 남=0, 여=1.

화시간($\beta=.21, p<.01$)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전체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설명력은 10%였다.

모델II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하여 전체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 대화시간($\beta=.17, p<.05$), 부-의사소통($\beta=.25,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17%가 되었으며 모델 I 에 비해 7%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III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전체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 대화시간($\beta=.16, p<.05$), 부-의사소통($\beta=.15, p<.05$), 자기효능감($\beta=.32,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27%가 되었으며, 모델 II 에 비해 9%가 증가하였다.

전체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32, p<.001$), 모 대화시간($\beta=.16, p<.05$), 부-의사소통($\beta=.15, 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모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김미숙(2006), 지수경(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교사관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I에서 ‘교사관계’ 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사관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모 대화시간($\beta=.17, p<.05$)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설명력은 6%였다.

모델 II 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하여 교사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9%가 되었으며 모델 I 에 비해 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¹⁾	-.10	-.07	-.13	-.08	-.11	-.07
	education of father	-.01	-.01	-.01	-.01	-.01	-.02
	economic condition	.06	.06	.06	.07	.06	.07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07	.09	.01	.01	.01	.01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13	.17*	.10	.13	.10	.13
Parent-adolescence'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of father			.14	.14	.09	.09
	communication of mother			.10	.10	.10	.10
Self- efficacy					.25	.17**	
F	3.32**		3.55**		4.01***		
R ²	.06		.09		.11		
ΔR^2	.06		.03		.03		

*p<.05 **p<.01 ***p<.001

1) 성별: 남=0, 여=1.

모델III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전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beta=.17, p<.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11%가 되었으며, 모델II에 비해 3%가 증가하였다.

교사관계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17, p<.01$)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김은선(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교사관계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교우관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I에서 ‘교우관계’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설명력은 7%였다.

모델II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

가하여 교우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의사소통($\beta=.21, p<.01$), 모-의사소통($\beta=.18,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14%가 되었으며 모델 I에 비해 7%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III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교우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beta=.23, p<.001$), 모-의사소통($\beta=.18,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20%가 되었으며 모델II에 비해 5%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교우관계의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beta=.23, p<.001$), 모-의사소통 ($\beta=.18, p<.01$)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교우관계에 있어 긍정적이며 이는 교우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교우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나갈 수 있으며 질적인 측면의 모와의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교우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게 되므로 사회성을 기르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gender ¹⁾	.10	.08	.07	.05	.09	.07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of father	.05	.10	.06	.10	.05	.09
economic condition	-.10	-.12	-.09	-.11	-.09	-.10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09	.13	.01	.01	.00	.01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06	.08	.02	.02	.01	.02
Parent - adolescence'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of father			.18	.21**	.12	.14
communication of mother			.17	.18**	.17	.18**
Self- efficacy					.32	.23***
F	4.05**		6.29***		7.68***	
R ²	.07		.14		.20	
ΔR ²	.07		.07		.05	

*p<.05 **p<.01 ***p<.001

1) 성별: 남=0, 여=1.

4) 수업태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I에서 '수업태도'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수업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모 대화시간($\beta = .15, p < .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7%였다.

모델II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하여 수업태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of the class attitude

In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gender ¹⁾	-.05	-.04	-.07	-.05	-.03	-.03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of father	.05	.10	.05	.11	.04	.09
economic condition	-.06	-.08	-.05	-.07	-.05	-.07
communication time of father	.05	.09	-.02	.03	-.02	-.03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10	.15*	.08	.12	.07	.11
Parent - adolescence'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of father			.18	.22**	.07	.09
communication of mother			.07	.08	.06	.08
Self- efficacy					.50	.40***
F	3.75**		4.77***		11.09***	
R ²	.07		.12		.26	
ΔR ²	.07		.04		.14	

*p<.05 **p<.01 ***p<.001

1) 성별: 남=0, 여=1.

부-의사소통($\beta=.22,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12%가 되었으며 모델 I에 비해 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III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수업태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beta=.40,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설명력은 26%가 되었으며 모델II에 비해 1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수업태도의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40, p<.0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수업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의미있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이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습부진아의 존중감 및 학습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이은숙(1995)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5) 학교규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I에서 ‘학교규칙’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

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교규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beta=-.12, p<.05$), 모 대화시간($\beta=.19,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학교규칙에 미치는 설명력은 6%였다.

모델II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하여 학교규칙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13, p<.05$), 모 대화시간($\beta=.19,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7%가 되었으며 모델 I에 비해 1%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III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여 학교규칙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 대화시간($\beta=.19,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8%가 되었으며 모델II에 비해 1%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학교규칙의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 대화시간 ($\beta=.19, p<.05$)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모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학교생활에 있어 규칙이 왜 필요하고 지켜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규칙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able 9. Hierarchical regression of the school rule

In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¹⁾	-.15	-.12*	-.15	-.13*	-.14	-.12
	education of father	-.04	-.07	-.04	.07	-.04	-.08
	economic condition	-.06	-.08	-.06	-.08	-.06	-.08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01	-.02	-.05	-.08	-.05	-.08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11	.19*	.12	.19*	.12	.19*
Parent - adolescence'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of father			.11	.14	.09	.11
	communication of mother			-.03	-.04	-.03	-.04
Self-efficacy					.11	.10	
	F	3.00*		2.68*		2.63**	
	R ²	.06		.07		.08	
	ΔR^2	.06		.01		.01	

*p<.05 **p<.01

1) 성별: 남=0, 여=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기효능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본 결과 성별과 부학력, 경제수준, 부모의 대화시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학교규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 부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보다 대학원 이상일 경우 교우관계에 있어 더 긍정적이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보다 대학원 이상인 학생이 수업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하위권이라고 인식한 중학생보다 중위권, 상위권이라고 지각한 중학생이 교우관계, 수업태도,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부 대화시간에 따라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와 대화를 거의 안하는 학생보다 1시간 이상 하는 학생이 교사관계, 교우관계에 있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수업태도에 있어서는 부와의 대화를 거의 안하는 학생보다 30분이상하는 학생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고,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부와의 대화를 거의 안하는 학생보다 1시간 이상 하는 학생이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모 대화시간에 있어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대화시간에 있어 30분미만 정도를 하는 중학생보다 30분이상을 하는 중학생이 교사관계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고, 모 대화시간을 거의 안하는 중학생보다 1시간이상 하는 중학생이 수업태도와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학교생활적

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개방적 의사소통과 모-개방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전체학교생활적응과 모든 하위변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부-문제적 의사소통에서는 전체학교생활적응과 교우관계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모-문제적 의사소통에서는 전체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개방적 의사소통과 모-개방적 의사소통에서는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에서 점수가 높아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문제적 의사소통과 모-문제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집단이 ‘중’이상 집단보다 점수가 높아 이는 문제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정적 대화를 지양하고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이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학교적응을 잘 해나간다는 서명성(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이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고 보고한 김지현(1996)의 연구결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전체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상’인 집단일수록 ‘중’이하 집단보다 전체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에서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수업태도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이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차이를 보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수업태도에 있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수업적응을 비롯한 학교적응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유효현(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의 총점과 하위요인별로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모 대화시간, 부-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모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부-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전체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하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해주는 것인 반면에, 아버지와의 대화는 시간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와 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전체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다고 보여진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남·여학생 모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백경숙과 권용신(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앞에서 본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집단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므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청소년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 중 교사관계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자기조절을 잘하므로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활발하게 생활하여 교사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우관계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모-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모-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교우관계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해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업태도에 대한 개

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업태도에 있어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의 중요한 학업부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수업태도 적응에 중요한 자기효능감은 부-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학교규칙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 대화시간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모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학교규칙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모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학교규칙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필요성을 알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시간이 많아져 학교규칙의 적응에 있어 긍정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풍부한 기초 자료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만을 연구하였는데 부모가 보고하는 의사소통의 측면까지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중학교 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시간과 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 모두 이 점을 인식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도록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차이와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개

선하고 학교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미숙(2006)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병찬(1995)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순영(200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연구. 교육심리연구. 11.

김은선(2006)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특성,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선(1995)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현(1996) 서울지역 중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구.

김태자(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관계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화심(2006)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민숙(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안영·강영신(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410

민하영(1991) 청소년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현(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경숙·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서명성(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배(1994)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습의욕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희정(199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효현(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원용진(1993) 학습자의 귀인성향과 학업성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동형(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미라(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주(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영(2006)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숙(1995) 아동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우월성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경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규식(2005) 지각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선일보, 2007.09.11.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llport G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 Holt, Rinehart & Winston.

Bandur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rnes HL,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Gross JH, Crandall EW,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5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Rutter M(1985)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6, 683-704.

Hurlock EB(1973) Adolescence Development. NY: McGraw Hill.

Hinshaw RP(196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Problem of Norm, Psychological 285-290.